

■ 2012년 전문자료집 ■

2012년

우수사례연구집

■ 2012년 전문자료집 - 우수사례연구

■ 목 차 ■

● 보호작업 인센티브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참여에 미치는 영향

(남동사회복지시설 그루터기 / 장성진 사회복지사) 5

● 뇌성마비에게 수중에서의 체간 안정성 훈련과 보행 훈련이 균형능력 및 보행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재활치료1팀 / 임현주, 임영은, 김영화, 이호승, 전효선, 선용선 물리치료사) 31

● 정신장애인 당사자 진행프로그램을 통한 임파워먼트 강화 연구

(남동사회복지시설 그루터기 / 황수빈 사회복지사) 43



보호작업 인센티브가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참여에 미치는 영향

- 남동사회복지시설 그루터기 / 장성진 사회복지사 -



1. 사례에 대한 문제의식

1) 정신장애인에게 있어 직업재활이 가지는 의미

직업은 생계수단의 의미를 넘어서 개인의 자아실현과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이 되고 사회 속에서의 개인의 지위를 결정하며 많은 인간관계를 갖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는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에게도 마찬가지이며 정신장애인에게도 그러하다(하경민,2011).

직업재활은(Vocational Rehabilitation)신체장애인 등이 적합한 작업을 발견하고, 될 수 있는 한 빨리 직업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행해지는 원조수단을 말하는데(윤정화,2007),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은 다른 장애분류에 따른 장애인과 다른 부분이 있다. 정신장애가 주로 중도장애이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던 일반인이 이상이 생기는 장애이기 때문에 정신장애인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개발하고 직업재활에 관계하는 여러 전문분야 중 직업능력의 회복지도, 직업지도, 직업훈련, 직업알선 등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제공을 포함한 계속적이고, 종합적인 직장생활 정착에 관련된 원조를 함으로써 그들이 사회에 복귀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한다(설진화,2001).

정신장애인의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정신장애인에게 있어서 직업재활은 경제적인 면에서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아닌 자아효능감을 높여주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주는 탁월한 재활수단이며(한국장애인고용공단,2007), 지역사회에서의 독립적인 생활과 사회적응에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뿐만 아니라 정신병리의 증상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Anthony 등, 1979; Jacobs등, 1984; Munetz 등 1993). 또한, 정신장애인들의 생산성과 독립성 회복은 사회와 가족의 부담이 되어온 정신장애인들의 자존심을 회복시키고(이충순 등,1997), 차별이나 주위의 압력과 같은 사회환경적 스트레스 요소로부터도 벗어나게 해주어 치료과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정은진,2011).

2) 보호작업 동기강화의 필요성

보호작업장은 장애의 특성이나 장애의 정도에 있어서 경쟁고용이 곤란한 장애인에게 개별화된 직업목표와 통제된 작업환경 하에서 보수가 있는 작업이나 작업경험 및 관련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되어 질 수 있다(강영임,2007).

서양에서의 많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기능이 떨어지는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서는 아직도 보호작업장이 가장 기본적인 직업훈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데, 정신질환이 심한 경우도 작업장에서 장기적으로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으며, 정신질환이 덜 한 경우는 정상적인 고용을 위해 필요한 직업적응기술, 직업적 기술, 작업장 내 동료·상사와의 대인관계 기술을 포함한 사회기술 향상에 초점을 맞추어 연습할 기회를 갖는다. 또한 많은 회원들이 큰 부담 없이 자신의 능력만큼 일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취업의욕을 가지게 하며 취업기회를 제공하고 정신장애인의 복합된 작업행동을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보호작업장의 작업이 사회에서의 경쟁적 산업 현장에서의 작업과 일치하지 않고, 그 내용이 단순하고, 기술개발이 어렵고, 반복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많은 작업자들은 작업 수행력이 떨어지고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장시간의 단순한 작업은 지루함을 느낄 수밖에 없게 만든다(한국장애인고용공단, 2002).

본 시설에서도 직업재활반과 주간재활반으로 나누어 각 분류에 맞게 직업재활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보다 적극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려는 직업재활반 회원들은 매일 보호작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주간재활반 회원들은 주 2회 보호작업에 참여토록 하여 작업기능 유지 및 취업에 대한 흥미나 욕구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된 보호작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은 본 시설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아 대부분의 주간재활반 회원들은 작업수행력이 떨어지고 작업에 대한 흥미가 매우 낮으며, 이는 직업재활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회원임에도 불구하고 직업재활에 대한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주간재활반에만 머무르며 수동적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수혜자적인 삶을 반복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로 2011년 2월부터 2012년 2월까지 본 시설 보호작업에 꾸준히 참여했던 주간재활반 회원 15명의 작업량을 살펴보면 동일한 작업의 2011년과 2012년의 매월 평균작업량이 크게 다르지 않으며, 2012년 주간재활반 회원의 직업재활반의 신규지원은 0%로, 올해 직업재활반은 2011년 직업재활반에 참여했던 회원의 재지원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간재활반 회원들의 적극적인 직업재활 참여를 위해 보호작업에 대한 회원들의 흥미와 관심도를 높이고자 본 기관 내소회원 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고, 가장 높은 욕구로 파악된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하여 회원들이 보다 직업재활에 대해 적극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독립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동기강화에 대한 방안을 찾게 되었다.

2. 사례 개입 계획

- ▶ 본 시설을 이용하는 전체 회원 중 2012년 2월 24일 기관에 출근했던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보호작업에 대한 욕구·흥미도 조사
- ▶ 주간재활반 회원을 대상으로 2012년 3월 ~ 2012년 5월까지 인센티브제도 시범 실시
- ▶ 작업량 및 작업비, 불량률, 작업태도에 대한 월 1회 비교분석
- ▶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참여 회원들의 욕구·만족도 조사와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 연 2회 수정·보완하여 2012년 11월까지 진행

1) 보호작업 실시 횟수 확대

: 2011년 주 1회로 진행했던 보호작업의 횟수를 2012년부터 주 2회로 확대함. 이는 일차적으로 작업횟수 확대에 비례해서 나타나는 작업비의 증가가 보호작업에 대한 회원들의 금전적인 관심을 유도하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는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흥미를 유발할 수 있음.

2) 보호작업 인센티브제도 실시

: 인센티브제도의 각 항목은 보호작업에 대한 회원들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계획됨.

① 사전욕구조사 결과

	문 항	의 건	비 율
1	보호작업을 왜 하나요?	취업했을 때, 현장에 잘 적응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위해	53.2%
		돈을 벌기 위해	20.0%
		일에 대한 성취감	6.7%
		자기보호	6.7%
		일주일에 두 번 작업의 감을 유지하기 위해	6.7%
		정신집중을 할 수 있어서	6.7%
	합 계		100%

	문항	의견	비율
2	보호작업에 임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요?	흥미를 갖고 열심히 참여한다.	50.0%
		흥미는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31.2%
		받을 작업비를 생각하며 즐겁게 참여한다.	12.5%
		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6.3%
	합계		100%
3	보호작업을 열심히 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작업 단가가 높은 작업을 한다.	38.9%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한다.	27.7%
		지금처럼 같은 작업을 하는 것이 좋다.	16.7%
		특별수당 같은 것을 만든다.	16.7%
	합계		100%
4	보호작업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떠들지 않고 규칙을 잘 지키며 작업수량이 평균인 사람	35.0%
		자신이 정한 작업수량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30.0%
		불량이 하나도 없는 사람	15.0%
		작업을 잘 못하는 회원을 도와주는 사람	15.0%
		조금 떠들거나 규칙을 잘 지키지 않아도 작업수량이 많은 사람	5.0%
	합계		100%
5	특별수당을 준다면 어떤 기준으로 주는 것이 좋을까요?	작업규칙을 잘 지키는 사람	33.3%
		자신이 세운 작업수량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	33.3%
		작업수량이 가장 많은 사람	19.1%
		불량이 없는 사람	14.3%
	합계		100%

	문 항	의 건	비 율
6	특별수당을 준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좋을까요?	10,000원	21.4%
		5,000원	21.4%
		2,500원 ~ 3,000원	21.4%
		500원 ~ 1,000원	14.5%
		100원 ~ 500원	7.1%
		7,000원 ~ 8,000원	7.1%
		15,000원	7.1%
	합 계		100%

⇒ 현재 본 기관의 보호작업 특성 상, 새로운 업체를 통해 보호작업 물품을 받거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작업의 단가를 올릴 수 없는 상황이고, 문항 3번처럼 보호작업 동기강화에 금전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작업비 인상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었음. 이에 회원들 스스로 작업을 열심히 하는 사람의 기준과 특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의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세부항목을 설정함.

② 인센티브제도

	항 목	세부 기준	인센티브
1	규칙 수당	- 매주 화, 금요일 보호작업 종료 후, 직업재활 실무자 1인과 보호작업장에서 회원들과 함께 작업에 참여하는 자활근로자 1인이 보호작업 규칙을 잘 지키는 회원 각 1인씩 2명을 선정 - 대상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보호작업 규칙 - 떠들지 않기 - 작업시간 잘 지키기 - 작업시간에 자리 이동하지 않기 - 작업시간에 음식물 먹지 않기 - 작업시간 중 핸드폰 사용하지 않기 - 자기의 작업물품은 자기가 가져오기 ※ 1개 작업단가 3원 대비 167개의 수량	500원

	항 목	세부 기준	인센티브
2	향상 수당	- 금월 작업량이 전월 작업량에 비해 10% 이상 향상된 회원 중 상위 5명 - 불량 발생시, 발생된 불량만큼 총 수량에서 제한	2,000원
		※ 1개 작업단가 3원 대비 667개의 수량	
3	성실 수당	- 매 보호작업 시, 불량이 없는 회원	200원
		※ 1개 작업단가 3원 대비 67개의 수량	
4	개근 수당	- 외래를 제외하고 화, 금 보호작업에 결석, 지각, 조퇴가 없는 회원	1,000원
		※ 1개 작업단가 3원 대비 334개의 수량	

※ 회원 1인이 모든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월 최대 10,000원의 인센티브 수령 가능.

3) 평가도구

- ① 매월 동일 작업에 대한 작업 수량 비교
- ② 인센티브가 포함된 매월 작업비의 변화
- ③ 매월 동일 작업에 대한 불량률의 변화
- ④ 보호작업에 대한 회원들의 흥미 및 관심도에 관한 사전·중간·사후 조사
- ⑤ 직업재활반에 신규로 지원하는 주간재활반 회원의 수

4) 진행일정

진 행 내 용 \ 월	2	3	4	5	6	7	8	9	10	11
보호작업에 대한 사전 관심도·욕구조사										
주 2회 보호작업 진행										
사례연구 계획서 제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공지 및 시범실시										
작업량 및 작업비 비교 관찰										
작업비 및 인센티브 지급 (매월 초)										
주간재활반 회원대상 직업재활반 모집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점검 및 보완·수정										

진행 내용 \ 월	2	3	4	5	6	7	8	9	10	11
사례연구 중간보고서 제출										
보호작업 및 인센티브에 대한 중간 만족도·욕구조사										
보호작업 및 인센티브에 대한 사후 만족도·욕구조사 및 차년도 계획 논의										
사례연구 최종 보고서 제출										

3. 개입 목표

■ 장기

: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주체적인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

■ 단기

- ① 보호작업에 대한 회원들의 흥미 및 관심도를 높인다.
- ② 전체 참여회원의 작업량과 작업비가 25% 이상 향상된다.
- ③ 전체 참여회원의 작업 불량률이 25% 이상 감소된다.
- ④ 주간재활반 회원이 직업재활반에 지원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4. 진행 과정

일시	내용
2/24	보호작업에 대한 회원들의 흥미·만족도·욕구조사 실시
3/9	인센티브제도 실시 안내 및 3월 작업량부터 인센티브 적용 공지 → 회원 대부분이 인센티브 항목에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 나타내었으며, 각 항목에 구체적으로 질문하는 등 많은 관심 보임.
3/13 ~ 3/30	매주 화, 금 보호작업 실시 및 매 보호작업 후 규칙수당 및 성실수당 해당자 공지 → 규칙수당 각 2명, 불량 없는 회원에 한해 성실수당 지급 및 게시판 기록. → 규칙수당에 대한 공지 후 보호작업 시 이전보다 작업 분위기나 집중도 높아졌으며, 규칙수당 대상 회원 발표나 자신의 작업 불량에 대해 신경 쓰는 모습 나타냄.

일 시	내 용																																																														
4/1 ~ 5/1	매주 화, 금 보호작업 실시 및 매 보호작업 후 규칙수당 및 성실수당 해당자 공지 → 보호작업 시 안정적인 분위기 유지 되었으며, 불량률 꾸준히 감소함. → 규칙수당의 경우 작업량이 적어도 작업태도가 우수하고 작업규칙을 잘 지키는 회원을 기준으로 많은 회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나, 선정되었던 회원이 재선정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여 일부 회원의 경우 규칙수당에 대한 의욕 감소되기도 함.																																																														
5/2	주간재활반 회원 대상 직업재활반 모집 → 본 연구의 대상인 주간재활반 회원 15명 중 1명(이*숙)이 직업재활반 지원하였고, 2명의 회원(이*민, 변*미)도 직업재활반 모집에 관심 보임.																																																														
5/3	3월분 보호작업비 지급(인센티브 포함) 및 인센티브 상세항목에 대한 재설명 → 3월 보호작업훈련에 대한 작업비 지급하였으며, 명세서 배부함. → 명세서에 각 인센티브에 대한 상세항목 기재하여 회원 스스로 자신의 작업량 및 인센티브 항목에 대한 현황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함. → 각 항목에 따른 인센티브 금액에 크게 실감하지 못했던 대부분의 회원들은 명세서에 기록된 인센티브와 자신의 작업비를 비교하게 되면서 인센티브에 대한 동기부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음. → 약 20.0%(3명)의 회원의 경우 실제 본인이 작업했던 작업량에 따른 작업비 보다 인센티브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발생함. ※ 작업명세서 예시 <table><tr><th colspan="5">2012년 05월 작업비 명세서</th></tr><tr><td colspan="2">남동사회복지시설</td><td></td><td></td><td>성명 : 성</td></tr><tr><th colspan="5">작업비지급내역</th></tr><tr><th>업체명</th><th>작업명</th><th>단 가</th><th>수 량</th><th>작업비</th></tr><tr><td>희성실업</td><td>T.R.W</td><td>3원</td><td>843</td><td>2,529</td></tr><tr><th colspan="5">작업비외지급내역</th></tr><tr><td colspan="2">작업반장 수당</td><td colspan="2">입·출고수당</td><td>월차수당</td></tr><tr><td colspan="2">0</td><td colspan="2">0</td><td>0</td></tr><tr><td colspan="2">개근수당</td><td colspan="2">규칙수당</td><td>향상수당</td></tr><tr><td colspan="2">1,000</td><td colspan="2">0</td><td>2,000</td></tr><tr><td colspan="2">성실수당</td><td colspan="2" rowspan="2">전월대비 증감률</td><td rowspan="2">49.1%</td></tr><tr><td colspan="2">400</td></tr><tr><td colspan="4">총지급액 :</td><td>5,929</td></tr></table>	2012년 05월 작업비 명세서					남동사회복지시설				성명 : 성	작업비지급내역					업체명	작업명	단 가	수 량	작업비	희성실업	T.R.W	3원	843	2,529	작업비외지급내역					작업반장 수당		입·출고수당		월차수당	0		0		0	개근수당		규칙수당		향상수당	1,000		0		2,000	성실수당		전월대비 증감률		49.1%	400		총지급액 :				5,929
2012년 05월 작업비 명세서																																																															
남동사회복지시설				성명 : 성																																																											
작업비지급내역																																																															
업체명	작업명	단 가	수 량	작업비																																																											
희성실업	T.R.W	3원	843	2,529																																																											
작업비외지급내역																																																															
작업반장 수당		입·출고수당		월차수당																																																											
0		0		0																																																											
개근수당		규칙수당		향상수당																																																											
1,000		0		2,000																																																											
성실수당		전월대비 증감률		49.1%																																																											
400																																																															
총지급액 :				5,929																																																											

일 시	내 용
5/4 ~ 5/25	매주 화, 금 보호작업 실시 및 매 보호작업 후 규칙수당 및 성실수당 해당자 공지 → 4월 대비 작업량 증가 및 불량률 감소의 경향은 지속되었으나, 보호작업에 대한 집중도 및 규칙수당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 낮아짐.
5/31	인센티브제도 시범실시 종료. 연장시행 결정 → 3개월의 시범실시로는 인센티브제도가 회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이 어렵고, 작업비 지급 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회원들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 연장시행 결정하기로 함.
6/4	4월분 보호작업비 지급(인센티브 포함) 및 인센티브 상세항목에 대한 재설명 → 회원들 스스로 만족해하거나 박수를 치며 격려하는 모습도 관찰됨.
6/5 ~ 6/26	매주 화, 금 보호작업 실시 및 매 보호작업 후 규칙수당 및 성실수당 해당자 공지 → 보호작업 시 분위기가 다소 어수선 하고, 규칙수당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도 다소 낮아짐. → 성실수당에 대한 공지 및 작업 게시판에 불량 수 게시로 작업의 정확성이 높아지는 효과 나타남.
6/25	주간재활반 회원 대상 직업재활반 모집 → 직업재활반 모집에 관심을 보인 회원은 2명이었으나 실제로 지원하지 않음.
7/2	5월분 보호작업비 지급(인센티브 포함) → 전월 대비 전체적으로 작업량과 작업비가 증가됨. 전체적인 증가와는 다르게 작업량이 감소한 회원이 46.7%정도 관찰되는데, 이는 일부 회원의 건강상의 문제와 기관 출근이 규칙적이지 않아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됨.
7/3 ~ 7/24	매주 화, 금 보호작업 실시 및 매 보호작업 후 규칙수당 및 성실수당 해당자 공지
8/3	인센티브제도 점검 및 수정논의(보호작업 담당 실무자) → 전반적인 작업량 증가 및 불량률 감소 등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고, 회원들 간의 부적절한 경쟁심 등 시행 초반 우려했던 부정적인 모습들도 관찰되지 않아 2012년 하반기까지는 동일한 기준으로 시행하기로 함.

일 시	내 용
8/14	6월분 보호작업비 지급(인센티브 포함) → 전체 회원 중 8명이 작업량 증가하였으며, 작업비도 약 17.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주 기관방학으로 보호작업과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욕구와 참여도 다소 낮아져 있는 것으로 관찰되어 이에 다시 동기부여 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재 공지 및 작업 시 안정적인 분위기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8/14 ~ 8/17	매주 화, 금 보호작업 실시 및 매 보호작업 후 규칙수당 및 성실수당 해당자 공지
8/17	8/17일 보호작업에 참여했던 회원 18명을 대상으로 보호작업 및 인센티브에 대한 중간 만족도, 욕구조사 실시 및 수정내용 검토

◎ 중간 만족도 욕구조사 결과

	문 항	의 건	비 율
1	보호작업에 임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요?	흥미를 갖고 열심히 참여한다.	35.7%
		흥미는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28.6%
		받을 작업비를 생각하며 즐겁게 참여한다.	17.9%
		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14.2%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지 않다.	3.6%
	합 계		100%

→ 보호작업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나 흥미도를 볼 수 있는 1번 문항에 있어서는 사전조사 시 동일하게 진행했던 내용임. 동일 문항에 대한 회원들의 응답변화를 보면,

긍정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문항(흥미를 갖고 열심히 참여한다, 받을 작업비를 생각하며 즐겁게 참여한다)의 비율은 62.5% → 53.6%로 감소됨.

중립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문항(흥미는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의 비율은 31.2% → 28.6%로 감소됨.

부정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문항(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지 않다)의 비율은 6.3% → 17.8%로 증가함.

이는, 사전조사에 비해 부정적인 결과로 사전조사 때 응답하였던 회원(비교적 출근률이 안정적인 회원) 외에 출근률이 불안정한 회원(월 5회 미만의 출근률)에게도 함께 조사가 이루어져 태도 변화에 대한 객관적인 결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사후 조사 시에는 안정적인 출근으로 보호작업에 꾸준히 참여한 회원을 대상으로만 진행하여 보다 객관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일 시		내 용	
	문 항	의 건	비 율
2	특별수당이 보호작업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33.3%
		도움이 된다.	38.9%
		보통이다.	22.2%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6%
	합 계		100%
→ <u>특별수당으로 인한 보호작업의 동기부여</u>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2%가 ‘도움이 된다’고 답변하였음.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유로는 ‘의욕이 넘쳐 더욱 열심히 하게 된다, 동기부여가 된다, 그냥 수당만 받는 것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서, 보상을 받을 수 있어서’ 등의 의견이 제시됨. ‘보통이다’의 경우 ‘특별수당에 연연하지 않는다, 보상이 미비하다’ 등의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의 경우 ‘금액이 너무 적다’의 의견이 제시되었음.			
	문 항	의 건	비 율
3	특별수당으로 인해 보호작업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6.7%
		그렇다.	44.4%
		보통이다.	33.3%
		그렇지 않다.	5.6%
		전혀 그렇지 않다.	0.0%
	합 계		100%
→ <u>특별수당의 효과성</u>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1.1%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이에 대한 이유로는 ‘집중이 잘 되는 것 같다, 적은 금액이지만 도움이 돼서, 일의 흥미를 높일 수 있어서, 불량이 안 나도록 노력하게 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됨. ‘보통이다’의 경우 ‘특별수당과 관계없이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최고수량을 채워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신경 쓰지 않는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그렇지 않다’의 경우 ‘금액이 적어서’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음.			

일 시		내 용	
	문 항	의 건	비 율
4	현재 실시하는 특별수당의 각 세부항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16.7%
		만족한다.	50.0%
		보통이다.	27.7%
		만족스럽지 않다.	5.6%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0.0%
	합 계		100%
→ 특별수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66.7%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음. 이에 대한 이유로는 ‘불량을 안내기 위해 열심히 작업하게 된다, 특별수당 항목이 세분화가 잘 된 것 같다’ 등의 의견이 제시됨. ‘보통이다’의 경우 ‘수당이 많아져야 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만족스럽지 않다’의 경우 ‘의도가 별로이다’라는 의견이 제시됨.			
	문 항	의 건	비 율
5	현재 실시하는 특별수당의 금액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22.2%
		만족한다.	33.3%
		보통이다.	27.7%
		만족스럽지 않다.	5.6%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	11.2%
	합 계		100%
→ 특별수당 금액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55.5%가 긍정적인 답변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유로는 ‘너무 많아도 안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됨. ‘보통이다’는 응답자의 27.2%가, ‘만족스럽지 않다, 전혀 만족스럽지 않다’의 경우는 16.8%의 응답자가 체크하였고, 이에 대한 이유는 작성하지 않았음.			
	문 항	의 건	비 율
6	보호작업에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기위해	특별수당 인상	3명
		작업비 인상	2명
		훈련시간의 축소	2명

일 시		내 용	
	문 항	의 건	비 율
6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관식)	작업비에 비례하는 특별수당 지급	2명
		넉넉한 작업물품량	1명
		쉬운작업 시행	1명
		자율적 참여유도	1명
		시간, 근면, 건강	1명
		선생님 말씀을 잘 듣는 것	1명
		무응답	4명
→ 보호작업 동기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주관식 설문에서는 ‘특별수당 인상, 작업비 인상, 작업비에 비례하는 특별수당 지급’등 ‘금전적 보상’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음. 기타 의견으로 제시된 ‘넉넉한 작업 물품량’에 대해서는 보호작업 물품공급 업체 측에 요청하여 가능한 회원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고, '훈련 시간 축소, 쉬운 작업시행'에 대해서는 반영되기 어려운 상황과 현재 작업이 매우 난이도가 낮은 것임을 설명함.			
8/21 ~ 8/31	매주 화, 금 보호작업 실시 및 매 보호작업 후 규칙수당 및 성실수당 해당자 공지 → 욕구 및 만족도 조사로 인해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회원들에게 다시 한 번 환기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어, 규칙수당 및 성실수당에 대해 질문하거나 작업에 집중하려는 모습 관찰됨.		
9/3	7월분 보호작업비 지급(인센티브 포함) → 전월 대비 일 평균 작업량은 증가하였으나, 약 21.66%로 작업비는 감소됨. 이는 기관 방학 등으로 인해 작업량이 줄어 그에 비례하는 결과로 생각됨. → 작업명세서 지급 시, 인센티브 항목에 대해 재 공지 하였고, 개인의 순수 작업량에 따른 작업비와 인센티브로 얻어지는 수당에 대해 비교해 볼 수 있도록 함.		
9/4 ~ 9/27	매주 화, 금 보호작업 실시 및 매 보호작업 후 규칙수당 및 성실수당 해당자 공지 → 안정적인 분위기로 보호작업 진행되었으나, 이용회원의 종결 및 입원 등으로 인해 보호작업 참여인원이 감소됨. →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불량률에 대해 공지 및 독려하여 작업에 대한 집중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		

일 시	내 용
10/2	8월분 보호작업비 지급(인센티브 포함) → 전월 대비 일 평균 작업량 감소하였으나, 감소된 회원의 대부분이 5% 범위내로 소폭 감소세를 보였고, 1명의 회원이 큰 폭의 감소세를 보여 전체적인 작업량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남. 작업량은 기관 방학이 끝나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임.
10/5 ~ 10/30	매주 화, 금 보호작업 실시 및 매 보호작업 후 규칙수당 및 성실수당 해당자 공지 → 불량률이 점차 낮아지면서 인센티브를 받는 회원이 증가하였고, 규칙수당을 받지 않았던 회원들이 작업 태도가 좋아지며 선정되기도 함.
11/1	9월분 보호작업비 지급(인센티브 포함) → 전월 대비 전체적인 작업량 증가와 불량률 감소, 인센티브 항목에 해당되는 회원들이 많아져 작업비 역시 증가세로 나타남. → 인센티브 항목과 각 개인의 순수 작업비 대비 인센티브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하여 동기부여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함.
11/2 ~ 11/9	매주 화, 금 보호작업 실시 및 매 보호작업 후 규칙수당 및 성실수당 해당자 공지
11/9	기관 내소 회원을 대상으로 보호작업 및 인센티브에 대한 사후 만족도, 욕구조사 실시 → 사후 만족도 조사는 중간만족도 조사 시, 출근률이 일정하지 않은 회원들의 응답으로 다소 객관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되어 <u>출근률이 일정하고 보호작업에 꾸준히 참여하였던 회원 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함.</u>

◎ 사후 만족도 욕구조사 결과

	문 항	의 건	비 율
1	보호작업에 임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요?	흥미를 갖고 열심히 참여한다.	33.3%
		흥미는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	26.7%
		받을 작업비를 생각하며 즐겁게 참여한다.	33.3%
		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6.7%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지 않다.	0.0%
	합 계		100%

→ 보호작업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이나 흥미도를 볼 수 있는 1번 문항에 있어서는 사전·중간조사 시 동일하게 진행했던 내용임. 동일 문항에 대한 회원들의 응답변화를 보면,

일시

내용

긍정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문항(흥미를 갖고 열심히 참여한다, 받을 작업비를 생각하며 즐겁게 참여한다)의 비율은 62.5%(사전) → 53.6%(중간) → 66.6%(사후)로 나타남. 이는 인센티브를 시행하기 전 사전 조사와 비교해 볼 때 다소 향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나 그 폭이 크지 않아 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보호작업의 태도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중립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문항(흥미는 없지만 열심히 하려고 노력한다)의 비율은 31.2%(I사전) → 28.6%(중간) → 26.7%(사후)로 점차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음.
 부정적인 태도로 볼 수 있는 문항(프로그램이니까 어쩔 수 없이 한다, 가능하면 참여하고 싶지 않다)의 비율은 6.3%(사전) → 17.8%(중간) → 6.7%(사후)로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됨.

	문항	의견	비율(중간)	비율(사후)
2	특별수당이 보호작업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33.3%	13.4%
		도움이 된다.	38.9%	53.3%
		보통이다.	22.2%	33.3%
		도움이 되지 않는다.	0.0%	0.0%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5.6%	0.0%
	합계		100%	100%

→ 특별수당으로 인한 보호작업의 동기부여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72.2%(중간) → 66.7%(사후)로 나타남. 중간 조사 시에 비해 ‘보통이다’의 비율이 다소 늘었으나, 여전히 많은 회원들이 인센티브 제도가 보호작업 참여에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문항	의견	비율(중간)	비율(사후)
3	특별수당으로 인해 보호작업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16.7%	13.3%
		그렇다.	44.4%	40.0%
		보통이다.	33.3%	46.7%
		그렇지 않다.	5.6%	0.0%
		전혀 그렇지 않다.	0.0%	0.0%
	합계		100%	100%

일시

내용

→ 특별수당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도움이 된다’고 답변한 응답자가 61.1%(중간) → 53.3(사후)로 나타남. 이 문항 역시 중간 조사 시에 비해 ‘보통이다’의 비율이 다소 늘었으나, 많은 회원들이 인센티브 제도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중간 조사 시 제시되었던 ‘그렇지 않다’의 부정적인 답변이 5.6% → 0.0%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음.

	문항	의견	비율
4	특별수당 시행으로 인해 가장 달라진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호작업에 임하는 태도	60.0%
		작업량 증가	20.0%
		보호작업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	20.0%
		시설에 결근하지 않으려는 노력	0.0%
		달라진 것 없음	0.0%
		기타	0.0%
	합계	100%	

→ 특별수당 시행으로 가장 달라진 점에 대해서는 60%의 응답자가 ‘보호작업에 임하는 태도’라고 답변하였음. 또한 ‘작업량 증가’와 ‘보호작업 규칙을 지키려는 노력’도 각각 20%씩 조사됨. 만족도 조사 1번 문항에 있었던 ‘보호작업에 임하는 나의 태도’에 대한 응답과는 다소 상이한 답변이나 회원들 스스로가 특별수당 시행으로 보호작업에 대한 집중도나 마음가짐이 가장 달라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음. 또한 ‘달라진 것 없음’에 대한 의견이 나오지 않아 특별수당 시행이 회원들에게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됨.

	문항	의견	비율
5	내년 보호작업에 특별수당 제도가 없어진다면 보호작업에 임하는 태도는 어떻게겠습니까?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	26.7%
		지금과는 달라질 것 같다	73.3%
	합계	100%	

→ 특별수당제도에 따른 보호작업 태도변화를 볼 수 있는 5번 문항에서는 ‘지금과는 달라질 것 같다’는 의견이 73.3%로 조사됨. 이에 대한 이유로는,

일시

내용

‘보호작업 참여에 관심이 적을 것이다, 특별수당을 계속 시행해야 더 열심히 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무래도 작업량도 줄고 하기 싫어질 것 같다, 흥미가 없어지고 작업량도 줄어들 것 같다, 특별수당을 계속 해야 더욱 성의를 갖고 열심히 참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액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돈을 싫어하는 사람은 몇 안 되니까 계속 했으면 좋겠다, 수당이 적어져 작업하는데 능력이 떨어질 것 같다’ 등의 의견을 제시함.

‘지금과 달라지지 않을 것 같다’에 대한 의견도 26.7%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이유로는 ‘돈에 대한 추구의 부족, 잘 모르겠지만 조금 더 높여주었으면 좋겠다, 항상 해온 작업이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한다.’ 등의 의견이 제시됨. 대부분의 회원이 특별수당제도가 보호작업을 열심히 하는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4번 문항에서 볼 수 있었던 것처럼 보호작업 동기 부여에 있어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항목임.

	문항	의견	비율
6	내년에도 특별수당 제도를 시행한다면 어떤 점이 개선되어야 하겠습니까?	특별수당의 기준	40.0%
		특별수당의 금액	53.3%
		특별수당의 지급방법	0.0%
		개선될 점 없음	0.0%
		기타	6.7%
	합계		100%

→ 특별수당의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으로는 ‘금액’에 대한 의견이 가장 많았고, ‘기준’에 대한 의견도 많이 제시됨.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수당 금액보다 기본 값을 올리자, 금액이 조금 더 높아졌으면 좋겠다’ 등의 의견이 있었고, ‘기준’에 대해서는 ‘수량을 많이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자, 일한 만큼의 적당한 수입액’ 등의 의견이 있었음. ‘기타’에 대한 의견은 따로 제시되지 않음.

	문항	의견
7	올해 처음 시행되었던 특별수당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의견	특별수당이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특별수당을 2배 높였으면 좋겠다 / 성실하게 일한 사람을 지목하는데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 특별수당을 천 원 정도 더 올린다 / 규칙수당은 뽑아주는 사람만 계속 뽑아주는 것 같다 / 특별수당이

일 시		내 용	
	문 항	의 건	
7	올해 처음 시행되었던 특별수당 제도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의견	있어 기뻐다 / 내년에도 특별수당이 있다면 개인의 열심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 특별수당제도로 인해 성실하게 일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 것 같다 ※ 비슷한 내용은 중복 작성하지 않음.	
→ 특별수당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특별수당이 보호작업에 열심히 참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 이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줌. 더불어 수당과 선정기준에 대한 건의도 있었으나, 인센티브제도 시행 자체에 대한 불만이나 부정적인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11/12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평가 및 차년도 계획 논의 → 올 해 처음 시행된 인센티브제도의 효과성과 회원들에게 관찰된 변화의 모습들, 욕구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한 차년도 시행여부 및 보완 사항 등에 대한 논의.		

5. 평 가

1) 목표 평가

① 목표1.

「보호작업에 대한 회원들의 흥미 및 관심도를 높인다」

: 사전·중간·사후 욕구만족도조사에서 동일한 항목으로 조사되었던 ‘보호작업에 임하는 나의 태도는 어떤가요?’에 대한 응답은 사후만족도조사 분석 내용에 기록한 것과 같이 인센티브제도가 보호작업에 대한 회원들의 흥미나 관심도를 높이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여짐. 그러나 중간·사후만족도조사 내 다른 항목에서 나타난 회원들의 의견과 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인한 회원들의 작업량 증가, 불량률 감소, 보호작업에 대한 집중도나 의욕향상 등의 결과는 인센티브제도가 보호작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흥미나 관심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보호작업과 직업재활에 대한 동기부여로 이어지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음.

② 목표2.

「전체 참여회원의 작업량과 작업비가 25% 이상 향상된다」

i) 작업량

항목	월	작업량	전월대비 증감률	작업량 증가회원	작업량 감소회원
1인 평균 작업량 ※작업명: T.R.W	2월	366.80개	—	—	—
	3월	363.26개	약 0.96% ↓	53.3% (8명)	46.7% (7명)
	4월	324.64개	약 10.63% ↓	20.0% (3명)	80.0% (12명)
	5월	383.13개	약 18.01% ↑	93.3% (14명)	6.7% (1명)
	6월	390.20개	약 1.84% ↑	53.3% (8명)	46.7% (7명)
	7월	440.00개	약 12.76% ↑	46.7% (7명)	53.3% (8명)
	8월	326.53개	약 25.78% ↓	46.7% (7명)	53.3% (8명)
	9월	365.26개	약 11.86% ↑	53.3% (8명)	46.7% (7명)
	10월	400.00개	약 9.51% ↑	46.7% (7명)	53.3% (8명)

: 인센티브제도를 처음 시행한 2월 대비 10월의 1인 평균 작업량은 약 9.09%의 증가가 관찰되나, 나타난 평균작업량으로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음. 인센티브제도 시행 초기(3~4월)에는 보호작업 업체의 사정으로 작업물품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본 사례연구에서 기준으로 하는 작업(T.R.W) 대신 다른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외부 전체행사 참여나 기관 내 프로그램 시간 조정 등으로 보호작업에 참여하는 시간이 축소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기 때문임.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중간평가 시 논의가 되어 이후로는 그러한 변수들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다양한 상황들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그러나 이러한 변수들이 작년에도 비슷하였던 것을 볼 때, 작년에는 보호작업에 참여하는 회원들의 1인 평균 작업량이 일 년 내내 별다른 변화가 없었으나 올해는 비슷한 변수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약 9%의 증가세가 나타났음. 이것은 처음 계획한 ‘작업량 25% 향상’의 목표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지만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작업량이 증가된, 즉 인센티브제도가 보호작업 참여에 있어 동기부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임.

ii) 작업비

항목	월	작업비	전월대비 증감률
1인 평균 월 작업비	2월	6,744원	—
	3월	10,539원	약 56.27% ↑
	4월	9,476원	약 10.9% ↓
	5월	11,530원	약 21.67% ↑
	6월	13,556원	약 17.57% ↑
	7월	10,619원	약 21.66% ↓
	8월	10,681원	약 0.58% ↑
	9월	11,745원	약 9.96% ↑
	10월	11,966원	약 1.88% ↑

: 회원들의 1인 평균 월 작업비를 살펴보면, 인센티브제도를 처음 시행한 2월 대비 10월의 1인 평균 월 작업비는 약 77.43% 증가된 것으로 나타남.

항목 i)에서 보았던 것처럼 1인 평균 작업량의 변화는 크지 않으나 보호작업에 참여하는 태도가 개선되고(규칙수당), 불량률이 낮아지며(성실수당), 수량을 하나라도 더 하려는(향상수당) 등의 회원들의 변화와 노력이 인센티브를 받는 근거가 되어 1인 평균 월 작업비는 큰 폭으로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음.

③ 목표3.

「전체 참여회원의 작업불량률이 25% 이상 감소된다」

항목	월	불량률	전월대비 증감률
1일 평균 불량률 ※작업명: T.R.W	2월	12개	—
	3월	8개	약 33.3% ↓
	4월	7개	약 12.5% ↓
	5월	6개	약 14.3% ↓
	6월	4개	약 33.3% ↓
	7월	4개	전월과 동일
	8월	3개	약 25.0% ↓
	9월	1개	약 66.6% ↓
	10월	0.5개	약 50.0% ↓

: 회원들의 1일 평균 불량을 살펴보면,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한 2월부터 꾸준히 감소되어 10월에는 2월 대비 95.8% 감소된 것을 볼 수 있음.

이전에는 작업 불량에 대한 회원들의 인식이나 작업에 대한 집중도가 낮아 보호작업 참여인원 중 불량이 없는 회원은 거의 없었으나, 인센티브제도를 시행하고 난 뒤로는 불량이 눈에 띄게 줄었고, 이제는 대부분의 회원이 불량이 없으며 2~3명의 회원에게만 적은수의 불량이 발견됨.

이는 인센티브제도 시행의 효과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으로, 회원들에게는 작업에 대한 책임감, 집중력, 성취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뿐 만 아니라, 불량을 걸러내기 위해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었던 실무자에게도 보다 효율적으로 업무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음.

④ 목표4.

「주간재활반 회원이 직업재활반에 지원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 직업재활반 모집은 5월, 6월 2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하반기에는 회원들의 욕구가 없어 진행되지 않음.

5월 직업재활반 모집 시 주간재활반 회원 중 이*숙 회원이 지원하였고, 선발되어 직업재활 프로그램(보호작업, 현장훈련 등) 참여함.

6월에는 2명의 회원이 관심 보였으나 실제적인 지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대상회원 15명 중 약 6.7% 목표달성된 것으로 볼 수 있음.

2) 과정 평가

① 긍정적인 부분

- i) 인센티브제도 시행으로 보호작업과 그에 따른 작업비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신들이 작업에 참여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인식을 할 수 있게 됨.
- ii) 보호작업 시 작업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졌으며, 불량을 감소하여 회원들 스스로도 자신의 작업에 책임감과 성취감을 갖게 됨.
- iii) 직업재활반의 회원들만 숙지하고 있었던 작업 시 규칙에 대해 주간재활반 회원들도 인지하게 되었으며, 규칙을 지키며 보호작업에 열심히 참여하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고, 이는 전체적인 보호작업 동기강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iv) 작업의 낮은 단가로 인해 보호작업에 대한 동기가 매우 낮았으나,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작업비 상승으로 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으며, 보호작업에 대한 동기강화로도 이어짐.
- v) 무엇보다 많은 회원들이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보다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보호작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음.

② 아쉬운 부분

- i) 회원들의 신체적 건강 및 증상관리의 어려움으로 기관이용이 중단되거나 병원에 입원하는 상황들이 발생하였음. 또한 보호작업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타 프로그램으로 인해 보호작업 시간이 축소되는 경우들이 발생하여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음.
- ii) 전월 보호작업에 거의 참여하지 않다가 당월 보호작업에 평균적으로 참여하는 경우 향상수당의 대상이 되어 인센티브를 받게 되거나, 지각의 빈도가 잦은 회원이 보호작업에 매우 적은 시간 참여하고 불량이 없어 성실수당을 받게 되는 등 인센티브제도의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들이 발생함.
- iii)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직업재활에 대한 관심증진과 보다 적극적인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였으나 이용회원의 약 70% 정도가 연령 및 건강, 인지 등의 어려움으로 실제적인 취업이 어려워 현장에서 진행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 참여를 이끌어 내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6. 결론 및 향후 계획

1) 결론

: 2011년부터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업무를 맡게 되면서 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회원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있어 낮은 의욕과 소극적인 태도, 매일 반복되는 생활에 안주하며 그냥 그렇게 지내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다. 물론 음성증상이나 많은 나이, 기관을 오랫동안 이용하며 생기는 일종의 내성 등 많은 요인들이 있겠으나, 직업재활에 있어서는 그러한 모습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기관을 이용하는 회원들이 실제적·객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라 직업재활에 대한 욕구가 낮은 것이라면, 기관 내에서 진행하는 직업재활 프로그램만이라도 보다 재미있게, 즐겁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하게 되었고, 회원들의 욕구조사를 바탕으로 금전적인 인센티브제도를 통한 보호작업 동기강화 방안을 찾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2012년 2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보호작업 인센티브제도는 회원들에게 그리고 직업재활 담당 실무자에게도 많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보호작업 시간동안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거나, 정해진 시간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임의로 중지하고 가만히 앉아 있거나, 아무런 의미 없이 작업에 참여하거나, 작업비가 지급되어도 크게 관심 갖지 않았던 이전의 모습들과는 달리 보호작업이 진행되는 날이면 미리부터 작업물품을 갖다 놓고, 정

해진 작업시간 동안 최선을 다해 작업에 참여하며, 내 불량이 몇 개나 나왔는지 궁금해 하고, 하나의 불량이라도 나오면 아쉬워하며, 오늘은 내가 규칙수당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마침모임 시 실무자를 바라보는 눈빛들이 이제는 익숙한 모습들이 되었다. 실무자도 마찬가지다. 전에는 회원들의 작업물품을 하나하나 살펴며 불량을 걸러내느라 많은 시간을 쏟았고, 보호작업에 욕구 없는 회원들에게 작업을 독려하느라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 그러나 이제는 불량을 걸러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도, 회원들에게 정해진 시간 동안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고 독려하는 것도 많이 줄었다. 위의 평가내용에서 제시된 작업량, 작업비, 불량률 같은 객관적인 수치 뿐 만 아니라 전과는 다르게 회원들에게서 느껴지는 에너지와 변화된 모습들이 있는 것이다.

물론, 보호작업에 참여했던 모든 회원들이 인센티브제도로 인해 다 동기강화가 되었고, 보호작업을 재미있어하고, 다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전보다 많은 회원들이 보호작업에 관심을 갖고, 노력하고,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게 된 것만으로도 반가운 변화이고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시도였지만, 이러한 시도에서 보여진 회원들의 변화와 노력이 회원들 각자의 삶에 있어서 책임감과 적극성, 주체성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작은 힘이 되길 기대해 본다.

2) 향후 계획

올해 나타난 긍정적인 성과와 회원들의 욕구, 실무자들의 논의를 통해 올해 부족하고 미비했던 부분들을 보완하여 차년에도 인센티브제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① 기존 인센티브항목과 금액은 그대로 유지

: 규칙수당, 성실수당, 향상수당, 개근수당

② 인센티브 기준의 변화

: 향상수당

‘금월 작업량이 전월 작업량에 비해 10% 이상 향상된 회원 중 상위 5명’

→ ‘개근수당 대상자 중 금월 작업량이 전월 작업량에 비해 10% 이상 향상된 회원 중 상위 5명’으로 변경

③ 인센티브항목 신설

i) ‘오늘의 작업왕’

: 회원들의 욕구만족도조사에서 제시되었던 것처럼 매 보호작업 시 작업을 가장 많이 한 회원에게 인센티브 지급(500원 예정)

ii) ‘랭킹왕’

: 각 분기별로 모든 인센티브 항목에 가장 많이 해당 된 회원 1명을 선정하여 인센티브 지급(10,000원 예정)

④ 인센티브 대상자 공지 및 게시

: 작업명세서 지급 시, 각 인센티브별로 대상이 된 회원들의 이름과 이유에 대해 공지하고, 게시판에 게시

⑤ 기타

- i) 새로운 보호작업 내용의 개발과 업체와의 유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회원들이 보호작업에 참여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지원
- ii) 회원들을 대상으로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연 1회 욕구만족도조사와 지속적인 실무자간 논의를 통해 제도 시행 중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들을 최소화 하고 본래 취지와 의도에 맞게 진행 될 수 있도록 점검

※ 참고문헌

- 강영임(2007). 「장애인 보호작업장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설진화(2001). 「정신분열병 환자의 직업재활 프로그램 모형개발에 관한 연구」,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정화(2007). 「정신지체장애인의 직업재활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충순 외(1997). 「현대정신보건과 지역사회」, 용인정신병원
- 정은진(2011). 「사회복지시설 이용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취업 전 교육프로그램의 효과성 연구」, 신라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희수(1999).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성과의 예측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경민(2011). 「정신장애인 직업재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02). 「정신장애인을 위한 직업재활 프로그램 ‘보호작업장 실태조사와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 한국장애인고용공단(2007).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한 역량강화프로그램 사례 및 매뉴얼」



뇌성마비에게 수중에서의 체간 안정성 훈련과 보행 훈련이 균형능력 및 보행능력에 미치는 영향

- 재활치료1팀

/ 임현주, 임영은, 김영화, 이호승, 전효선, 선용선 물리치료사 -



I. 사례연구의 개요

1. 문제점

1) 뇌성마비 아동은 미성숙한 뇌의 손상으로 인한 움직임과 자세의 장애를 갖고 있다. 최근 치료 접근 법으로 경련과 근육의 긴장도 그리고 근육의 약화와 같은 근골격계의 이차적인 문제를 줄여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근육 약화는 뇌성마비 아동에게 기능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거 저항적 근력강화들이 있었다. 특히, 체간 근육의 약화는 움직임의 불안함과 자세의 불균형을 가져온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는 뇌성마비 아동 스스로가 효율적으로 근력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운동기능에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강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 제안되어야 한다.

2) 뇌성마비아동에게 이동은 물리치료의 근본적인 치료 목표 중 하나가 되곤 한다. 몇몇 연구에서는 지상에서의 걷기 훈련이 하지의 저항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뇌성마비 아동이 걷는 동안 효율적인 에너지 상승이 있었음을 보고하였다.

2. 필요성

아동의 체간 근력 약화에 따른 아동 스스로 효율적인 근력강화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그에 따라 수중에서 능동적인 근력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지상에서의 보행 훈련의 효과성을 바탕으로 수중에서의 보행 훈련을 통한 보행 능력 향상의 증명이 필요하다.

3. 목적

뇌성마비 아동에게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체간 훈련인 trunk rotation control 과 보행훈련이 균형능력과 보행능력의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II. 사례연구의 내용

1. 대상자

남동장애인 복지관 수중물리치료를 이용하는 이용인 중 선별함.

- 1) 연구에 참여하기를 동의한 자(연구 참여 동의서)
- 2) 6~18세 남(6명), 여(2명)
- 3) 1년 이내에 외과적 수술이 없는 자.
- 4) 3개월 이내에 보톡스 시술이 없는 자.
- 5) 창상과 같은 외상이 없는 자.
- 6) 집중도가 35분 이상인 자.
- 7) 구두지시수행이 가능한 자.

8) GMFCS level 1~3 (Gorter & Currie;2011)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levels for children with CP 6~18 years

1. Walks without limitations
2. Walks with limitations
3. Walks using a hand-held mobility device
4. Self-mobility with limitation; may use powered mobility
5. Transported in a manual wheelchair

2. Measurement

1) Activity (3회 측정 후 평균값을 결과값으로 사용)

(1) Functional reaching test;FRT

-지상(cm)

-수중(cm)

(2) Timed up and go;TUG

-지상(sec)

(3) 4m walking test

-지상(sec) : 수중 환경과 동일하게 4m 로 측정함.

-수중(sec) : 수영장 크기가 작아 최대 4m 가능함. 4m * 3회로 시간을 합산함.

2) Trunk rotation test : 3회 연습 이후 실제 측정.

① Transverse rotation control;TRC : fix level의 점수화

1. axial level
2. xiphoid process level
3. 12th rib level
4. pelvis level
5. knee level
6. ankle level
7. no support
8. knee support with squat position
9. ankle support with squat position

② Sagittal rotation control;SRC : 회전 각도. 수평면과 척추의 각도.

③ Combine rotation control;CRC : fix level의 점수화

1. trunk assistance level
2. shoulder girdle level
3. axial assistance level(one arm)
4. elbow assistance level
5. one hand assistance level (grip)

- 6. one hand assistance level (guidance)
- 7. verbal comment level
- 8. independent level
- 3) General property
 - (1) Height(cm)
 - (2) Weight(kg)
 - (3) Age(yea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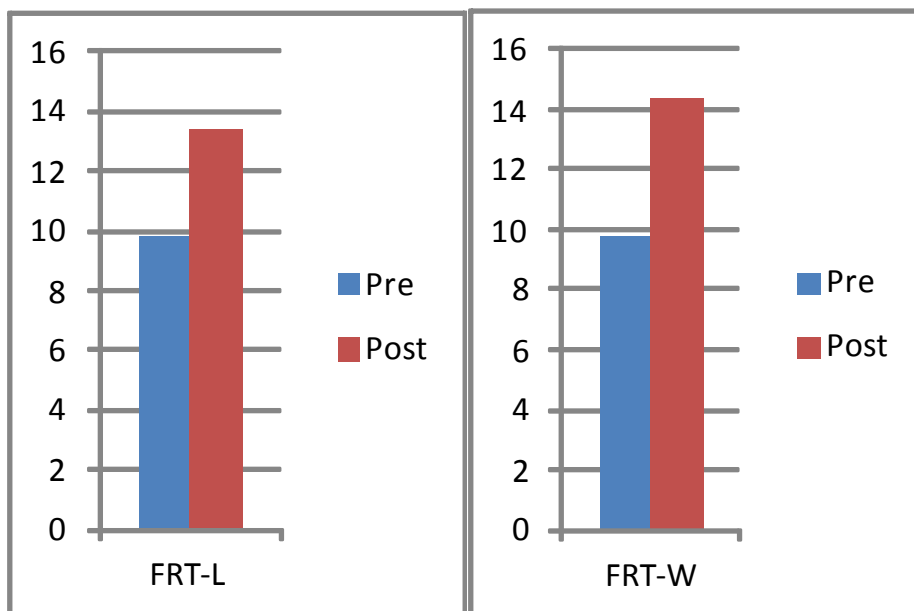
3. Interven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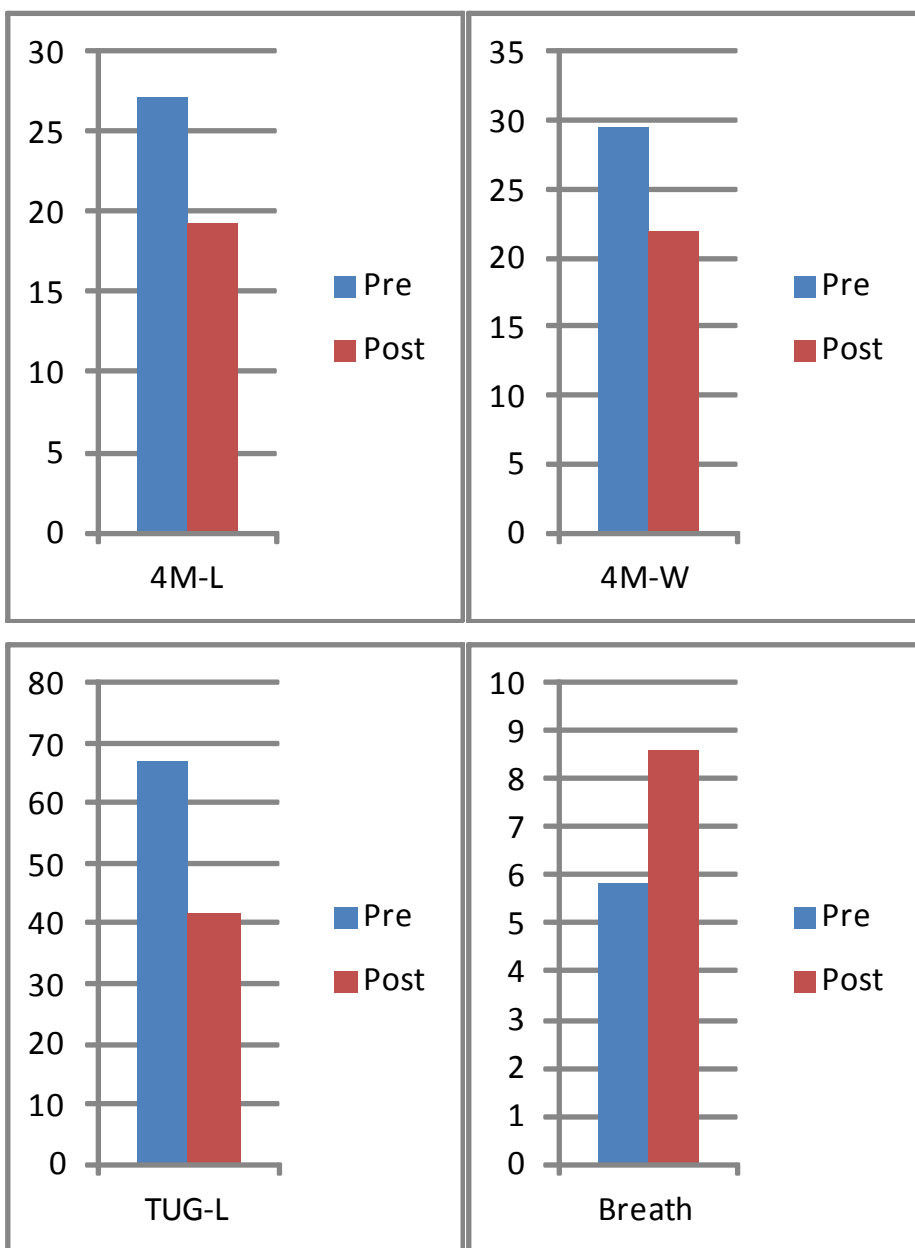
1회/1주, 총 치료시간 35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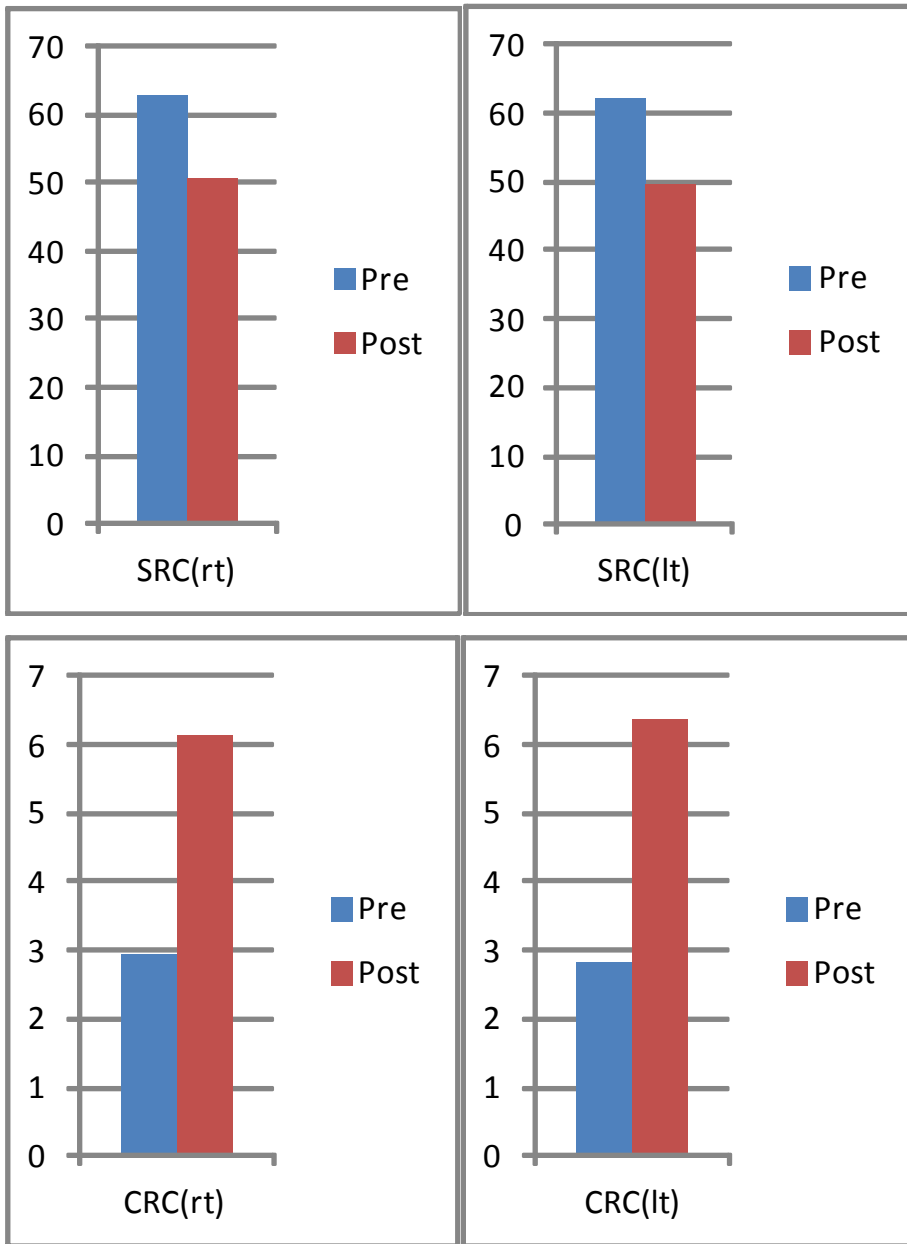
- 1) Warming up : normal walking
- 2) Trunk rotation control (Halliwick technique)
 - (1) TRC : 10회
 - (2) SRC : 10회
 - (3) CRC : 10회
- 3) Gait training
 - (1) 5 min. walking
- 4) Cool- down : normal walk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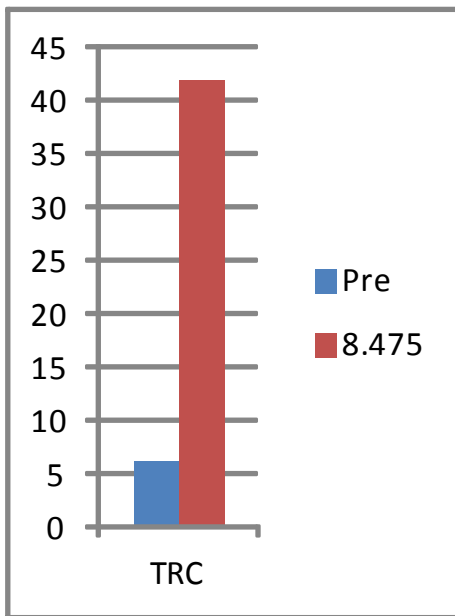
4. Statistics

Paired T-test (wilcoxon signed rank) Window 용 SPSS/PC 12.0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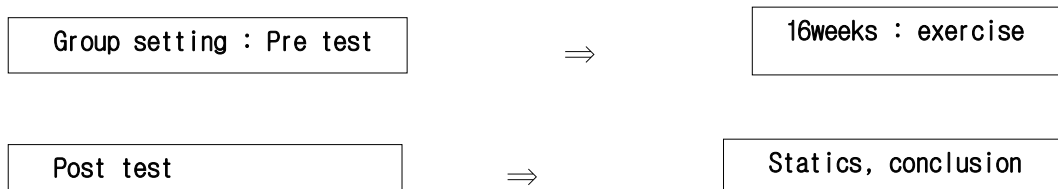






1. 모든 평가방법에서 전후 유의한 변화를 보였음.

5. Experimental design



6. Results

6.1. activity에서의 치료 전과 후 비교

6.1.1 Functional reaching test;FRT에서의 치료 전과 후 비교

분석방법	pre	post
	m	
land	9.88	13.41
water	9.8	14.42

이용인의 능력을 테스트하기 위해 실시한 land FRT에서는 9.88cm였고, 치료 후에는 13.41cm로 증가를 보였다. 또한 수중에서 실시한 FRT에서도 9.8에서 14.42로 증가를 보였다.

6.1.2. Timed up and go;TUG에서의 치료 전과 후 비교

분석방법	pre	post
	m	
land	66.92	41.89

TUG는 물에서 실시할 수 없어 지상에서만 측정하였으며,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

한 아동은 4-point cane과 walker를 이용하여 실험에 참여하였다. 치료 전에는 66.92s였던 평균값이 41.89s로 큰 감소를 보였다.

6.1.3. 4m walking test에서의 치료 전과 후 비교

분석방법	pre	post
	m	
land	27.18	19.39
water	29.61	22.05

수중에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길이가 4m이기 때문에 walking test를 4m로 정하였으며, 스스로 보행이 불가능한 아동은 지상에서 4-point cane과 walker를 이용하여 실험에 참여하였다. 수중에서는 스스로 보행이 가능하여 보조 도구를 사용하지 않았다. 치료 전 지상에서는 27.18s, 치료 후에는 19.39로 큰 변화를 보였고, 수중에서는 29.61s에서 22.05s로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6.2. Trunk rotation test에서의 치료 전과 후 비교

6.2.1. Transverse rotation control;TRC에서의 치료 전과 후 비교

분석방법	pre	post
	m	
land	6.06	8.48

TRC를 실시할 때 fix level을 점수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6.06에서 8.48로 증가함을 보였다. 6 level은 ankle level, 7 level은 no support, 8 level은 knee support with squat position, 9 level은 ankle support with squat position으로 정하였다.

6.2.2. Sagittal rotation control;SRC에서의 치료 전과 후 비교

분석방법	pre	post
	m	
Rt.	62.83	50.58
Lt.	62.25	49.79

SRC는 수평면과 아동의 척추간의 각도를 측정하였다. 오른쪽은 62.83°에서 50.58°로 감소하였고, 왼쪽은 62.25°에서 49.79°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아동의 좌,우 체간 조절 능력이 향상 된 것으로 관찰되었다.

6.2.3. Combine rotation control;CRC에서의 치료 전과 후 비교

분석방법	pre	post
	m	
Rt.	2.94	6.13
Lt.	2.81	6.38

CRC의 경우 fix point를 점수화하여 계산하였다. 오른쪽은 2.94에서 6.13으로 증가하였으며, 왼쪽은 2.81에서 6.38로 증가하였다. 1 level은 trunk assistance level, 2 level은 shoulder girdle level, 3 level은 axial assistance level(one arm), 4 level은 elbow assistance level, 5 level은 one hand assistance level (grip), 6 level은 one hand assistance level (guidance), 7 level은 verbal comment level, 8 level은

independent level로 정하였다.

6.3. breath에서의 치료 전과 후 비교

분석방법	pre	post
	m	
water	5.84	8.59

아동이 최대한 길게 할 수 있는 호흡을 측정하였으며, 5.84에서 8.59로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 호흡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는 실시하지 않았으나, 다른 치료로 간접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

7. Discussion

본 연구는 뇌성마비 아동을 대상으로 수중에서 체간안정성 훈련인 trunk rotation control과 보행훈련이 균형능력과 보행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GMFCS level 1~3, 6~18세 남(6명),여(2명)로, 주 1회, 총 치료시간 35분씩 5개월간 실시하였다.

균형 능력과 보행 능력의 검사를 위해 지상과 수중에서 측정을 하였고, 훈련 전과 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TUG(Time UP Go Test) 지상검사 결과 치료 전 시간보다 치료 후 시간단축이 보였다.
2. 4m Walking Test 검사결과 치료 전 시간보다 치료 후 시간 단축이 보였다.
3. FRT(Functional Reaching Test) 지상검사 결과 치료 전 보다 치료 후 길이의 증가를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 수중에서 체간 안정성 훈련과 보행 훈련을 뇌성마비아동에게 적용하여 보행능력과 균형능력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고, 향후 Level 4~5 아동으로 한 비교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되며 더욱 효과적인 균형능력 향상과 보행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법을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8. Reference

1. Gait Posture. 2009 Apr;29(3):403-7. Epub 2008 Dec 10.
Comparison of maximal and spontaneous speeds during walking on dry land and water.Chevutschi A, Alberty M, Lensel G, Pardessus V, Thevenon A.
2. Indian J Pediatr. 2005 Nov;72(11):979-83.
Therapeutic interventions in cerebral palsy.
Patel DR.
3. Dev Neurorehabil. 2011;14(4):230-41. doi: 10.3109/17518423.2011.575438.
Group swimming and aquatic exercise programme for children with autism

- spectrum disorders: a pilot study.
Fragala-Pinkham MA, Haley SM, O'Neil ME.
4. *Pediatr Phys Ther.* 2009 Winter;21(4):336-44.
Effects of aquatic aerobic exercise for a child with cerebral palsy: single-subject design.
Retarekar R, Fragala-Pinkham MA, Townsend EL.
 5. *Pediatric Physical Therapy*, vol. 21, no. 1, pp. 68-78, 2009.
An aquatic physical therapy program at a pediatric rehabilitation hospital: a case series.
M. A. Fragala-Pinkham, H. M. Dumas, C. A. Barlow, and A. Pasternak
 6. *Phys Occup Ther Pediatr.* 2010 May;30(2):111-24.
Aquatic physical therapy for children with developmental coordination disorder: a pilot randomized controlled trial.
Hillier S, McIntyre A, Plummer L.
 7. *Am J Health Promot.* 2009 Jan-Feb;23(3):157-67.
The benefits of physical activity for youth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a systematic review.
 8. *Dev Med Child Neurol.* 2008 Nov;50(11):822-7.
Group aquatic aerobic exercise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Fragala-Pinkham M, Haley SM, O'Neil ME.
Source: Research Center for Children with Special Health Care Needs, Franciscan
 9. *Phys Occup Ther Pediatr.* 2001;20(4):63-78.
Aquatic therapy in pediatrics: annotated bibliography.
Dumas H, Francesconi S.
 10. *Dev Med Child Neurol* 1998; 40: 176-181.
Effects of a movement and swimming program on vital capacity and water orientation skills of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Hutzler Y, Chacham A, Bergman U.
 11. *Developmental Medicine and Child Neurology*, vol. 50, no. 10, pp. 744-750, 2008.
Content validity of the expanded and revised 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
R. J. Palisano, P. Rosenbaum, D. Bartlett, and M. H. Livingston.
 12. *Journal of Aquatic Physical Therapy*, vol. 13, pp. 21-35, 2005.
The effects of an aquatic resistive exercise program on ambulatory children

with

cerebral palsy.

D. E. Thorpe, M. Reilly, and L. Case.

13. J Aquat Phys Ther 2000;8: 18.24.

The effect of an aquatic resistive exercise program on lower extremity strength,

energy expenditure, functional mobility, balance and self-perception in an adult

with cerebral palsy: a retrospective case report.

Thorpe DE, Reilly M.



정신장애인 당사자 진행프로그램을 통한 임파워먼트 강화 연구

- 남동사회복지시설 그루터기 / 황수빈 사회복지사 -



I. 사례연구의 개요

1. CASE 개요

(1) 기본사항

이 름	강 ○ ○	성별	M	결혼여부	기혼□ 미혼■
생년월일	1964년 9월 ○일				
장애명	정신장애	급수	3급	중복장애	-
보장구	유□ 무■	종류		장애등록	유■ 무□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 3동 ○○빌라 가동 ○○○호				
전화번호	032) 422-○○○○		핸드폰	010-9559-○○○○	
생활정도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호1□ 의료보호2□ 일반□				

(2) Life-Story 요약(장애발생배경, 양육배경, 가족역동 포함)

① 병력

- 최초발병시기 : 1990년 (ct 나이 27세 경)
- 입 원 력 : 병의원 3회
- 자 살 시 도 : 無
- 약물치료 협조 정도 : 매우 양호

② 개인력

ct를 임신했을 당시 ct를 지우려고 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함. 이유는 알지 못 하지만 어렸을 때 우연히 듣게 되었다고 함. 인천에서 태어났고, 돌 지나서 걸음이 다른 유아보다 늦었다고 함.

어린 시절 기억 중에 10살 경에 불장난을 하다가 불을 낸 기억이 나고, 사촌이 돈을 훔친 후 자신에게 몇 천원을 나누어줬는데, 정확한 사실도 알지 못 한 채 ct의父가 오해하여 ct를 때렸다고 함. 그 당시의 기억이 지워지지 않고, 아직까지도 父에게 화가 난다고 하였음.

내성적인 성격이었고 학업 성적은 하위권이었다고 함. 상인천중학교를 진학했고, 컨닝하여 평균 80점 이상으로 졸업했다고 함. ct는 산수를 잘 하지 못 했는데, 시험 후 여러 번 반복해서 채점을 해도 점수가 다르고, 부모님의 회수권 판매 일을 도와드렸을 때에도 간단한 숫자 셈을 잘 하지 못 했다고 함.

인문계 진학하기에는 어려운 성적과 만원버스를 타기 싫은 이유로 인천기계공업고등학교에 진학하였다고 함.

고교 졸업 후 21세에 군에 입대하였고 30개월을 무사히 마치고 제대했다고 함.

제대 후 공무원 준비를 하던 동생을 따라 검찰 7급 준비를 2~3년 동안 했고, 고시원 총무 생활을 하며 지내던 1990년 6월 경 환청과 환시, 망상 (지하철에서 자신을 부르는 소리, 자신은 안기부 요원이다, 도깨비가 보임)등의 증상이 나타났다고 함. 어느 날은 지하철에서 어떤 아주머니가 서류 가방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작

전으로 나에게 전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가방을 가져갔고 역무원에 의해 바로 경찰서로 갔다고 함. 50일정도의 구치소 생활에서 불안함과 무서움을 느꼈고, 하루도 잠을 자지 못 했다고 함.

이 때 서울시립병원에 감정조치로 1달 동안 입원하였고, 퇴원 후 90년 9월 경에 성모자애병원에 입원치료 받았고 환청과 환시의 증상이 있었으며 호전되어 몇 달 동안 약물 복용을 중단하였다고 함. 이후 92년 11월과 99년에 총 3번의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함.

이후 특별한 취업이나 사회 생활 없이 동생과 뒷산을 가거나 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취업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방문하였고, 공단의 직원으로부터 본 기관을 소개받아 내방하였다고 함.

2006년부터 본 시설에서 작업훈련반에 참여하였으며, 이후 정신과진료와 기타 진료에 대해 유동적으로 대체하는 모습 보였다고 함. 이후 2007년에도 지속적으로 작업훈련반에 참여하였으며, 기관이용에 있어 취업을 통해 외부에 나가는 것에 대해 긴장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함.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한국사회복지시설협회에서 주최한 정신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리더십 트레이닝 Bravo My Life에 참여하여 수료하였음. 이때 다양한 기관에서 활동하며, 타기관에서 모집한 회원들 중에서도 리더의 역할 수행하였음. 이에 대해 c't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었으며, 긍정적인 부분으로 평가하기도 함. 9월 ‘먹거리 종합식품’에 취업면접 봤으며,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근무 희망했다고 함. 근무는 2일 했으며, 근무 중 정형외과와 외래상담을 위해 조퇴하는 것의 어려움으로 퇴사함. 사업주는 c't에 대해 체력이 가장 취약점인 것으로 평가하였고, 집중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함.

이후 지속적으로 직업재활반 참여하였으며, 취업회원 자조모임에서 반장역할을 성실히 수행함. 2010년부터는 본 시설의 운영위원회 회원 대표, 자치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음. 지속적으로 본 시설의 리더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2011년 초에는 현장훈련(일시취업)에 참여하였으나, 건강상의 이유로 직업재활반 참여의 어려움을 호소함. 이후 주간재활반에 참여하였음. c't는 신규 회원이 있을 경우 챙겨주는 모습을 보이거나 회원들과 자체적으로 모임을 결성하여 소요산으로 당일치기 여행을 갔다 오는 등의 리더십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함.

③ 가족력

◆ Genogram ※familiar loading : (+) 남동생/ 할아버지 형제 7촌 정신과 치료/ 5촌 사촌 사촌	•父(78세) : 레코드 가게 운영/ 착한 성격으로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함. 사업 실패 후 자괴감이 크고, 비관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함. ct는 이런 아버지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다소 갖고 있음. •母(73세) : 아파트 청소 일을 하고 있고, ct의 치료에 안타까워한다고 함. 집안의 경제력에 대한 주 책임을 갖고 생활해왔다고 함. •누나(50세) : 기혼. 개봉에 거주. ct에게 관심을 갖고 가끔 전화 통화하는 정도라고 함. •남동생(47세) : 신체형장애로 8년 동안 정신과 치료 중. ct와 현재 가장 친밀하고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음. 서로에 대해 이해를 잘 하며, 약물 복용에 대해 불안할 때 복용하고 있다고 함. ct 상담 시 함께 내방하였음.
---	---

(3) 주호소 내용

- ① 주간재활반에서의 리더 역할 수행에 대한 만족감 표현
- ② 사례관리의 어려움 (2012년 4월 기준)

본 시설 직원	회원
전체 여자 직원 4명	남자회원: 18명 / 여자회원: 6명

⇒ 남자회원 비율 높으나 이에 대한 사례관리자인 직원은 여자만 있음.

· ct는 이성 사례관리자에 대한 상담 한계 → 이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며, 자신이 이용회원들이 자신에게 자유롭게 상담 요청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함.

2. 서비스 이용 현황

복지관 등록일	2006년 5월 15일
이용 중인 관 서비스(모두)	남동사회복지시설 주간재활반 참여중
이용 중인 타 기관(학교포함)	성모자애병원 Dr.전양환

3. 사례선정 사유

- c't 강점 활용

① 증상 안정

2003년 시설 이용 이후 지속적으로 증상 안정되어 있는 모습 보이며, 자신의 증상에 유동적으로 대처하는 모습 보임.

② 본 시설 내 리더 역할 수행 → 임파워먼트

c't는 시설 이용시 리더의 역할을 수행(자조모임 결성 등) 하며, 동료지지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욕구도 있음. 이러한 c't의 강점과 욕구를 토대로 임파워먼트할 수 있는 당사자 진행 프로그램(다시서기-관계맺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함.

II. 사례연구의 내용

1. 사례에 대한 필요성

1) 회복 패러다임

① 관점에 대한 소개

일반적 건강과 기능의 재보전을 바탕으로 당사자의 삶의 주체성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관점이다. 이에 대해 전제는 다음과 같다.

- 정신질환은 극복될 수 없는 만성질환이 아니다.
- 회복의 시작과 끝의 주인공은 전문가가 아니라 당사자이다.
- 증상이 있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삶의 건강성은 가능하다는 경험적 관점이다.
- 증상 뿐 아니라 정신질환의 부정적인 측면의 영향과 전문가의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
- 당사자들의 자기결정과 활동을 극대화 하는 동료지지 활동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채택한다.
- 보호받는 환경이 아닌 일상생활의 무대인 지역사회에서의 자신의 건강한 영역의 활동을 통해 건강성을 확대해 간다.
- 정신질환이라는 힘든 경험과 시간을 극복한 강인함을 가지고 각기의 희망과 기대, 자신의 삶을 추구한다.

이를 통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장애를 수용하고 장애를 극복해가는 삶의 경험과 삶의 방식으로 일상의 도전에 접근하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재구성할 수 있다. (관계맺기를 통한 자기회복, 보스턴대학교 정신의학재활센터, 송경옥의 번역)

② 다시서기-관계맺기 프로그램 개요

i) 사업분류 : 사회성프로그램

ii) 시기 : 연중 / 주 1회 / 매주 월요일 AM 10:00 ~ 12:00

iii) 목적 : 회원 스스로에 대한 자기인식과 삶의 대응방법에 대한 이해 도모
회원 주도적인 진행을 통한 역량 강화

- 당사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동료의식 및 동질감 향상
- iv) 본 프로그램 참여의 적합성 (c't가 진행하는 것에 대한 적합성)
- 회복패러다임 ‘다시서기-관계맺기’의 궁극적 목표와의 일치

회복패러다임	⇒	본 시설 내 활용
동료 지지를 통한 점진적 회복 과정 동참		c't 당사자의 역할에서의 상담 욕구
다양한 형태의 재활과정의 자발성		본 시설내 주도적 역할 수행

몇몇 나라의 정신보건서비스의 기반이 되고 있는 Recovery 패러다임은 다양한 기능과 욕구의 층위를 가진 정신장애인들의 다양한 회복경로를 인정한다. 따라서 그에 기반한 실천 이론과 활동들은 직업재활에서 배제되는 정신장애인에게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다양한 삶의 형태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동료지지를 통해 점진적으로 회복과정에 동참할 수 있다는 신념과 장기적인 다양한 형태의 재활과정에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사회복지시설에서의 한국적 Recovery 지향서비스의 발전과정 및 집단활동 실행 매뉴얼,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 c't는 본 시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직원 4명이 수행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역할에서의 상담에 대한 욕구가 있기에 이를 활용해 회복패러다임의 궁극적인 목표와도 일치할 수 있을 것이다.

2) 임파워먼트와 회복패러다임의 관계

회복의 여러 요소들 중 임파워먼트는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변인으로 인식된다(Young and Ensing, 1999). 정신장애로 인해 오랜 기간 사회생활이 단절된 만성정신장애인의 경우 사회적 기능의 저하 및 축소된 사회관계망, 편견과 같은 환경적 제약으로 인해 소외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한다. 때문에 정신장애인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주체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과 환경에 대한 통제력을 회복하고 스스로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러한 임파워먼트는 다른 요인들이 정신장애인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정신장애인 대상의 연구는 아니지만 노인이나 장애인과 같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임파워먼트가 매개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며 (어용숙·김문정, 2009; 최정민 외, 2011),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비록 매개적 역할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임파워먼트와 삶의 질에 관련성을 보고한 연구(최명민 외, 2006)도 이러한 가정을 뒷받침해 준다. (정신장애인의 회복에 기초한 삶의 질 연구, 김미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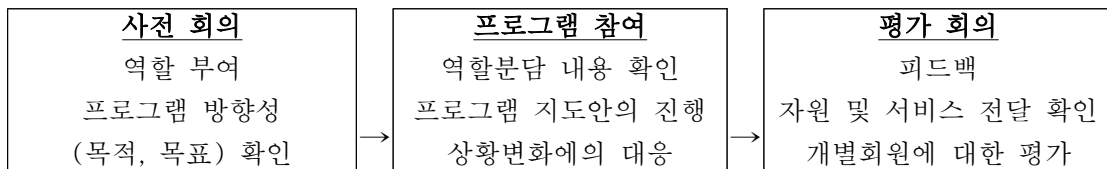
2. 사례 개입 계획

1) 전체 개입 계획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프로그램 소개 및 'wer & c't 계획 합의												
프로그램 참여												
프로그램 보조진행	팀별 의견 취합 역할											
	전체 의견 취합 역할											
프로그램 주진행												
프로그램 진행 사전-사후 평가												
개별상담												
전체 평가												

2) 프로그램 진행 참여

* 프로그램 보조 및 주진행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2001, 정무성·정진모 인용)

※ 이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며, 매회기별 진행에 대한 사전회의 및 참여, 평가회의에 참석함.

- 보조진행 (4월 ~ 9월) : 'wer가 중점적인 역할 수행, c't 보조인력 활용
- 주 진행 (10월 ~ 11월) : c't 중점적인 역할 수행, 동료지지 역할 수행

3) 사후 평가 계획

- 질적 평가 (1월 ~ 12월 / 지속적)
- 진행시의 개별상담, 7월과 12월에 개별인터뷰 진행

3. 사례 개입 목표

- 장기 다시서기-관계맺기 프로그램 진행을 통해 임파워먼트를 경험한다.
- 단기
 - ① 주 1회 다시서기-관계맺기 프로그램의 보조진행 및 주 진행에 참여한다.

- ② c't 스스로 프로그램 사전 사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 ③ c't가 동료상담 및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4. 사례 진행 사항

1) c't와 'wer의 욕구 합의 및 상반기 프로그램 참여

① 개입내용

- 형태 : 개별상담, 프로그램 참여

일시	프로그램 내용	내용
01.12	-	회복패러다임에 대한 내용 전달해드리며, 추후는 당사자만 진행하려고 하는 담당자 의견 드림. c't는 당사자 진행 프로그램 & 동료상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음. 본 시설 이용회원의 대부분이 남자이고, 직원들은 여자이기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함. (c't와 'wer의 욕구 합의) 그러나 프로그램 진행하기엔 어려움이 있음에 대해 공감 하기에 상반기에는 보조진행자로 참여하시기로 함. 보조진행자로 참여하면서 회원들이 자연스러운 의견 공유할 수 있는 기회될 것으로 기대함.
01.16	오리엔테이션	회복 관점에 대해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모습이었으며, 진행자가 준비한 자료에도 관심을 보이는 모습 이었음.
01.30	규칙 정하기 자신을 위한 일	프로그램 전반적인 의미에 대해 파악하기엔 어려운 부분이 있음을 이야기하시며, 자신은 '관계맺기'라는 것이 단순히 '마니또 게임'하는 것 인줄 알았다고 하심. 이에 대해 담당자는 필요하다면, c't의 의견 반영해 진행될 수 있음을 이야기드림. 보조진행에 어려움(전체 회원 앞에 나서는 것,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일단은 프로그램 참여하시고 점차적으로 보조진행 확대하기로 함.
02.07	다시서는 길 →'회복 과정'에 대한 이해	프로그램 내용파악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심. 자신의 회복에 대해 방해하는 장애물에 대해 '소극적인 성격, 자신감 감소, 장애에 대한 불안'이라고 대답함. 이러한 장애물에 대해 c't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인식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 해드림.

일시	프로그램 내용	내용
02.13	힘든 걸음 나의 스트레스 → 스트레스 상황 및 대처 방법	회원들이 주제에 대해 이해하기에 어려워하는 반면에 다른 회원에 비해 비교적 질문을 이해한 듯 보임. 스트레스 받을 때 표현하지 않는 것을 자신의 스트레스 악화시키는 모습으로 파악함. c't 스스로 스트레스 해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생각하고 접근 할 수 있도록 해야 함.
02.20	걸림돌 견어 차기 - 스트레스 대처 전략 세우기 → 자신의 문제해결력 발견	질문지에 대한 이해도 높음. 스트레스가 풀리는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음악감상'이라고 답했으며, 경쾌하고 빠른 음악을 듣는다고 함. 이에 다른 회원들에게도 공유하는 모습임. 2월 말 정도까지 프로그램 참여하며, 이후에 보조진행자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02.27	여정준비하기 - 나의 일상 활동의 돌아봄과 그 의미 → 일상생활 의미, 느낌	다른 회원의 이야기에 코멘트 이야기하면서 분위기 만들어줌. (자신의 일상에서 집에 갈 때 걸어가는 시간이 가장 좋다고 이야기함. 다른 회원들에게도 지속적인 운동이 혈압과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 된다고 의견 말함.)
03.05		군대생활시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적당한 운동 했던 일이 가장 의미 있었다고 함. 군 생활당시 60kg이었으며, 민첩하고 날렵했다고 함.
03.12		군대 이야기에 가장 흥미보이는 것으로 사료됨. 최** 회원에게 '예의바르고 씩씩하다' 라고 긍정적 피드백 제공하는 모습 관찰할 수 있었음. 스스로의 장점에 대해 '리더십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이에 다른 회원들도 같은 칭찬해주는 모습임.
03.19	다시 그리는 지도 - 생각 바꿔 보기 → 긍정과 부정의 관점 (관점의 차이 이해)	사회생활을 하게 될 경우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으로 답변했으며, '하늘색'으로 표현함. 하늘의 맑고 푸르른 모습이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이야기함.
04.02		자신의 긍정적인 모습에 대해 '적극적이다, 리더십이 있다'고 표현함. c't 스스로도, 다른 회원들이 칭찬하는 점도 리더십임을 알 수 있음.

② 평가

회원평가	담당자 평가
- 프로그램 내용 파악의 어려움 - 동료지지 역할 수행 기대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높음 - 타 회원 의견에 공유 & 적절한 반응 → 보조진행 역할 수행 역량

2) 프로그램 참여 + 보조진행 역할 부여 ⇒ 팀별 의견 취합 역할

① 개입내용

● 형태 : 개별상담, 프로그램 참여

일시	프로그램 내용	내용
04.09	길을 가는 즐거움 -나의 즐거움 →감정의 주체가 '나'임을 이해	보조 진행에 대한 역할부여 할 예정이며, 조별활동 진행 할 예정임. 이에 대해 c't의 의견 물어보자 '매끄럽게 되지 않을까봐 걱정된다'라고 말씀하심. 이에 처음부터 잘할 순 없으며, 일단 시도해보는 것에 대해 의미 가지는 점 이야기드림. 부족한 점이 있다면 평가 회의 때 이야기하기로 함. 진행자가 진행할 때 보다 참여도와 회원들 의견 이야기 하는 빈도수 상승한 점에 대해 담당자 긍정적인 피드백 드림. C't도 좋은 것 같다고 이야기함. 개별회원들의 평가에서는 최**, 이** 회원이 기록지에 적지 않아 자신이 불러준 부분이 많다고 하심. 이에 대해 담당자 최대한 회원들의 이야기를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드림. 조**회원의 경우엔 지나치게 아버지 눈치를 보는 것이 느껴지며, 이에 대해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심. 이에 대해 자신이 지속적으로 멘토링 하는 부분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주심.
04.12 ~ 05.20 c't 개인적인 사정 (담석증 수술)으로 시설 결근 → 참여 진행되지 않음		
05.21	관계맺기 오리엔테이션	담석 수술로 오랜만에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이에 참여도 높음. 다음 회기부터 프로그램 보조진행에 참여할 것에 대해 안내해드리며, '다시서기-관계맺기' 관련된 책자 제공함. 이에 c't는 시간 있을 때 읽어보겠다고 이야기함.
06.04	자신과의 연결 짓기 및 관계맺기 - 자신을 위한 일	금일 c't가 보조진행으로 하는 것에 대해 담당자 전달하지 못했음. c't 나름대로 자신의 역할을 찾아 참여하는 모습 볼 수 있었음. 이후에 담당자가 미처 챙기지 못할 경우 c't 스스로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 확인하도록 당부함.
06.11	→ 이름 붙이기 & 어린 시절의 이야기 나눔 (나아진 자신의 모습에 대한 기대와 신념 부여)	프로그램 시작 전, 사전 회의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목표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음. 실제 프로그램시 회원들에게 조장 역할을 부여하였으며, 담당자가 진행하는 것보다 회원들이 더 편하게 이야기하는 모습 관찰할 수 있었음. 이러한 부분에 대해 지지해드림. 그러나 다른 회원들의 기록지를 일일이 읽어 보는 모습 보여, 이런 것 보다는 자연스럽게 대화 이끌어 낼 수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습하는 것 필요하다는 담당자 의견 줌.

일시	프로그램 내용	내용
06.18	관계맺기 - 스트레스란? →스트레스에 대한 다양한 의견 공유	금일 프로그램 시간 감소와 간단한 주제로 진행되기에 따로 역할부여하지 않음. 참여도 지난회기에 비해 낮은 편임. 그러나 보조진행 했던 지난 회기 내용을 다른 때와 다르게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음.
06.25	자기 수용의 강화 - 자신과의 관계맺기 →스트레스의 증상, 사건, 대처방식 공유	참여 전,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미팅 (목적, 의도 확인) 함. 이에 프로그램의 진행방향에 대해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 다른 회원이 부적절한 대답(주제와 다른 내용)을 했을 경우엔 수정 요청하는 모습 보임. 담당자가 즉석에서 전체 진행 요청하였을 때도 당황하지 않고 능숙하게 진행하는 모습 보임. 그러나 회원들이 대답한 내용에 대해 반응(공감, 수용 등)하는 모습은 부족해 이에 대한 피드백 제공해드립니다.
07.02	감정이란? →‘감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오늘은 40분정도 프로그램 진행이고, 의견 전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이기때문에 다른 역할부여하지 않음. 프로그램 진행의 역할 부여 후, c't는 프로그램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기억하고 있는 모습이었음. 프로그램 중간에 비교적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다른 회원들의 의견에 대해 피드백을 제시하는 모습 볼 수 있었음. (박** 회원 감정단어에 대해 ‘빠르다’라고 대답하니 이것은 행동 단어가 아니냐는 말씀을 하심)
07.09	자기 감정과 감정 내용 알기 - 감정의 다양성 →부정적 감정의 약화와 재해석	프로그램 시작 전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사전 진행 설명함. 자료들을 읽어보며 ‘어렵다, 논문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모습 볼 수 있었음. 그러나 진행에 대한 파악 비교적 잘하는 편이었으며, 이에 다른 회원들에게 예시 제시해주는 모습 볼 수 있었음. 프로그램 진행시 보조 진행의 역할 부여하였으며, 이에 역할 적절히 수행하는 모습 볼 수 있었음. c't가 진행시에 참여도 낮은 회원들이 편하게 의견 제시하는 모습 관찰할 수 있었음.
07.23	상반기 평가 → 상반기 정리	담당자가 상반기 c't가 보조 진행했던 부분에 대해 소감 물어보자, 한참 생각함. 이후에 “잘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답변함. 이에 담당자 다른 회원들에게 물어보자 다른 회원들은 ‘리더십 트레이닝에 참여해봐서 그런지 리더십 있게 잘한다.’ ‘재치있다’라는 긍정적인 피드백 주심. 담당자도 c't가 진행할 때 다른 무엇보다 회원들이 편하게 c't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 있다고 지지함.

② 평가

회원평가	담당자 평가
• 전체적인 프로그램 흐름에 대해 다소 어려움. 그러나 자신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미 부여	•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도 높음 - 진행 프로그램에 대한 목표 제시 및 방향 설정 • 평소 회원들과의 자연스러운 교류하는 관계→ 회원 특성에 맞게 의견 이끌어 내는 모습 관찰
• 향후 계획 - 지속적 참여 및 평가 - 단계적(팀별 의견 취합→전체 의견 취합→전체진행) 역할부여 필요	

3) 프로그램 참여 + 보조진행 역할 부여 확대 ⇒ 전체 의견 취합 역할

① 개입내용

● 형태 : 개별상담, 프로그램 참여

일시	프로그램 내용	내용
8.20	나의 가치란?	전체 진행은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사료되어 기존에 조별모임 진행하는 것에서 확대하여 전체 의견을 진행하는 부분으로 하기로 목표 합의함. 자신의 필기된 노트를 보면서 지난회기와 이번회기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임. 다른 회원들의 의견에 대해 피드백 주는 모습 볼 수 있었음.
9.3	감정어휘 향상하기	‘나’에 대해 알려고 하는 것에 대해 비교적 정확히 파악했으며, 이에 대해 초점 잘 맞춰 작성하는 모습임. 이에 담당자는 c't의 의견을 예시로 들어 다른 회원들에게 들려줌. 이후에 이런 부분을 다른 회원들이 이해하는 모습임. 아직 회원들에게 지시적으로 작성하게 하는 부분 있지만, 다른 회원들의 롤모델이 되려고 노력함.
9.24	타인과의 관계맺기 →관심 가지기	금일 담당자가 목적설명을 따로 하지 않아 목표에 대한 파악 어려워하는 모습임. 그러나 다른 회원들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점들에 대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며 긍정적인 피드백 제공하는 모습 볼 수 있었음.

② 평가

회원평가	담당자 평가
- 프로그램 준비하려고 노력함 - 나름대로의 주도적 역할 수행	- 지시적인 태도보다는 자발적인 참여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변화 필요 - 프로그램 평가에 대해 자발적으로 담당자에게 요청하는 것 필요 - 회원별 개별 평가 가능

4) 프로그램 참여 + 주진행 역할 부여 ⇒ 전체 진행

① 개입내용

- 형태 : 개별상담 (사전 및 평가 회의), 프로그램 참여

일시	프로그램 내용	내용
10.08	타인과의 관계맺기 →친밀감의 경험	자신의 의견 발표를 시작으로 다른 회원들의 적절하게 유도하여 이끌어 내는 모습 볼 수 있었으며, 유머를 통해 다른 회원의 즐거운 웃음 유발하는 모습 볼 수 있었음. 그러나 친한 회원의 경우엔 반말과 속어 등을 섞어 진행하는 모습을 보여 이에 대해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좋지만 공식적인 자리인 만큼 감정상하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필요함을 이야기 드림. c't는 평가 때 몇 년동안 함께한 본 시설내 회원들의 친밀한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것이 의아하다며, 다음 회기 때 이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 도 좋을 것 같다는 의견 주심. 이에 다음 회기는 이에 대해 진행하려고 함. (c't 의견 제시→ 반영)
10.15	타인과의 관계맺기 →그루터기에 대한 친밀함의 정도	c't의 지난 회기 평가대로 '그루터기에서의 친밀함'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것에 대해 목적 설명함. c't는 '박**, 윤**'회원이 답변하는 것에 대해 파악하기 어렵다고 함. 담당자는 인지가 낮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만, 이 부분에 대해 수용하고, 답변한 회원들에 대해 c't 나름대로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해 담당자 의견드림. 또한 c't가 단순히 발표를 듣는 것이 아니고 발표에 대한 피드백을 줌으로써 대상 회원들의 지지할 수 있음을 이야기드리며, 어렵지만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것 필요하다고 의견드림. c't는 자신은 없지만, 노력해야한다고 평가함.

일시	프로그램 내용	내용
11.05	타인과의 관계맺기 →관계선택-지지의 경험	사전 O.T시 '지지'의 개념이 많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며, 프로그램 시작 전까지 내용(단어 의미 등)에 대해 찾아보는 모습임. 주제와 상반되는 답을 하는 회원의 경우에도 이제 나름대로의 피드백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거나 아직 어렵다고 평가함. 인지 낮은 회원(문길수)의 경우에도 발표하도록 이끌어내는 강점 볼 수 있었음. 마무리 하는 부분에 대해선 아직 어려워 담당자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는 모습임.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c't가 역할강화 할 수 있도록 당부함.

② 평가

회원평가	담당자 평가
• 프로그램에 이해도 낮은 회원 대상으로의 피드백이 어려움 • 다양한 의견 나눌 수 있었음 • 자신 외에 다른 회원들도 진행할 수 있는 분위기이길 바람	• c't의 변화 및 노력하는 모습 관찰 (프로그램 준비, 피드백 등) • c't 강점(리더십) 활용으로 회원 역할 강화 도움 • 지속적인 역할 강화 필요

5. 평가 및 향후 계획

목표	• 주 1회 다시서기-관계맺기 프로그램의 보조진행 및 주 진행에 참여한다.
개입평가	• c't 입원을 제외하고는 프로그램 참여 완료 • 보조진행 → 주진행으로 확대하는 과정 • 담당자와 c't가 프로그램 사전 및 사후 과정에 대해 참여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목표합의와 진행 과정에 대해 공유
사후 계획	• 지속적 진행 • 목표 합의 수렴 과정 • c't 외에 다른 회원 역할 확대로 주도적 역량 강화
목표	• c't 스스로 프로그램 사전·사후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입평가	• 매 프로그램시 목표에 대해 합의하고, 진행방향에 대해 논의 →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 교환 진행
사후 계획	• 프로그램 진행 방향성 합의를 위해 강화 필요

목표	• c't가 동료상담 및 지지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입평가	• c't 입원, 전체 진행에 대한 c't의 부담감 등으로 인해 실제로 동료상담 및 지지자의 역할 수행의 어려움 있었음. 점차적으로 이런 역할에 대해 확대 필요성 있음.
사후 계획	• 차년도에는 실무자-회원으로 국한된 상담에서 회원-회원으로 진행하는 개별상담 진행 → 동료상담 및 지지자 역할 수행 가능성

III. 결과 및 제언

본 연구는 2012년 1월부터 11월까지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 배급한 ‘다시서기-관계맺기’ 프로그램 실행 매뉴얼을 토대로 회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당사자가 직접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개별 사례이다. 시설 내 자조모임을 결성하고, 다양한 역량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용회원을 대상으로 역할 부여했다. 초반 c't와 합의된 목표를 수립하였으며, 매 회기·상하반기 개별 면접을 통한 질적 평가로 진행하였다. 1월에서 4월까지의 기존대로 프로그램 참여만 하는 형태에서 이후엔 팀별의견취합, 전체의견 취합, 전체 진행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갔다. c't는 처음에는 프로그램에 단순히 참여하는 모습에서 이후엔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하고, 프로그램 진행에 대한 준비를 하거나 프로그램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등의 모습 볼 수 있었다. 11월 현재 아직 전체진행을 이끌어 나가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동료상담으로 이어지기엔 어려워하는 모습 보이지만, 지속적으로 역할 강화하는 부분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년동안 담당자와 c't간 의사소통을 통해 c't의 강점을 발견하고, 역량강화 할 수 있었으며, 차년도의 프로그램 방향성에 대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차년도 본 시설에서의 특별활동-동료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프로그램 내에서 c't 외의 다른 회원들의 다양한 역할 부여를 통해 역량강화를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2012 전문자료집 - 우수사례연구집

남동발간 2012-13호

■발행일 : 2012년 12월

■발행인 : 서 현 정

■편집인 : 임 하 나

■주 소 : (405-868)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번길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홈페이지 : www.ndjb.or.kr